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12. 7.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 연구실	연구책임자	백성준 부연구위원 강민석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774 3441-0769
------	-------------	-------	------------------------	----------	------------------------

제 목: 2005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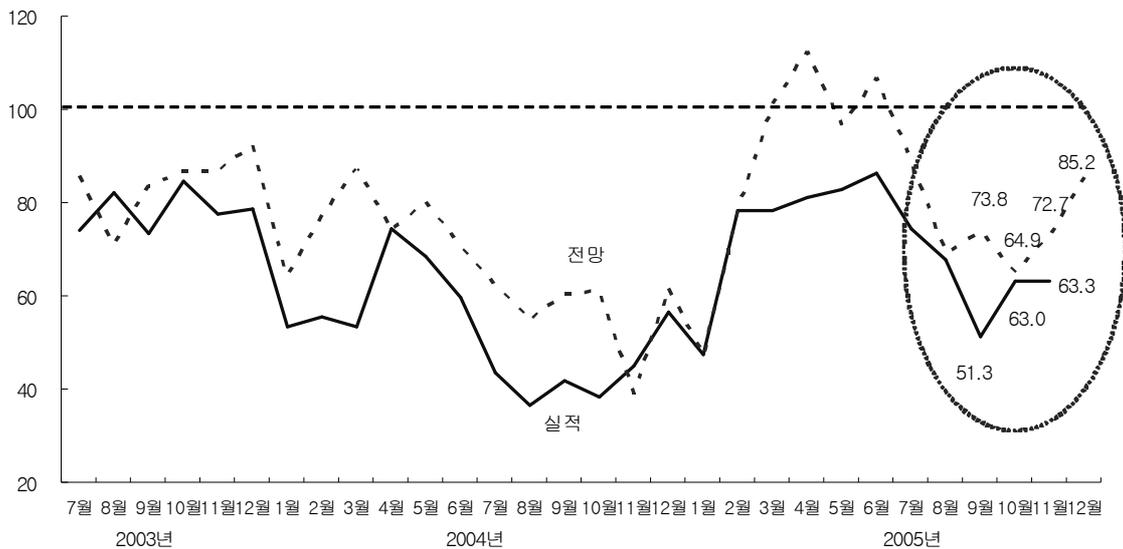
- 2005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3.3을 기록함.
 - 지수가 지난 9월 최저점을 기록한 후 2개월째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채 경기부진이 지속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72.7)의 체감경기가 4개월째 기준선에 크게 못 미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지역별로는 서울업체(69.5)와 지방업체(53.2)의 체감경기가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남.
 - 12월의 건설경기 전망(85.2)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음.
- 공사물량(77.8)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공종별로 보면 모든 공종에서 전월에 비해 지수가 상승하여 물량 감소 폭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됨.
 - 대형업체(100.0)는 주택부문이 부진하였으나 토목과 비주택 물량의 증가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71.4, 59.2를 기록하여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임.
 - 1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3.1을 기록하여 연말의 공사물량 발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체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어려워졌으며 전반적으로 자재와 인력의 수급은 원활한 편이나 비용은 여전히 높게 나타남.
 - 인력수급지수는 97.7을 기록하였으나 지난 7개월간 지수가 기준선을 계속 상회하여 여전히 수급여건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2005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1월 CBSI 63.3, 대형업체 부진 지속

- 2005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3.3을 기록함.
 - 체감경기는 지난 9월 51.3을 기록하여 최저점을 기록한 뒤 지수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경기종합 BSI 추이 >



- 전반적인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지난 6월이후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임.
 - 지난 9월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수는 크게 낮은 수준임.
 - 민간부문의 경우 8·31대책 이후 신규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해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업체간의 양극화 역시 체감경기의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규모별로는 모든 업체의 체감경기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대형업체(72.7)의 경우 7월 이전에는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었으나 8월 이후 4개월째 체감경기가 기준선을 밑도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8·31 대책이후인 9월(41.7)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음.
 -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59.3, 56.9를 기록하여 여전히 체감경기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69.5, 53.2를 기록하여 체감경기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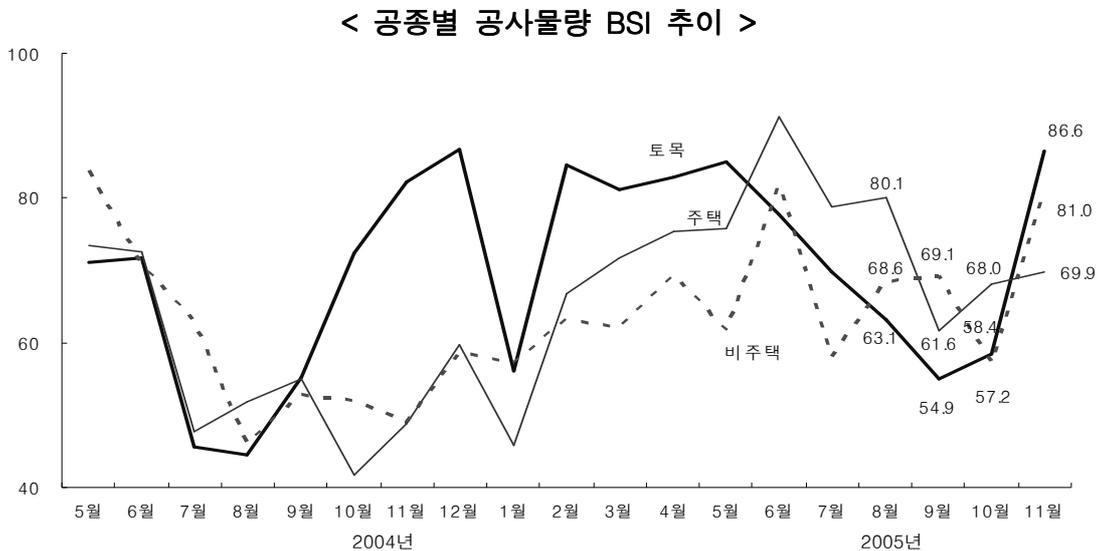
구 분		2004년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망
총 합		56.6	47.4	78.1	78.4	81.2	82.9	86.4	74.2	67.8	51.3	63.0	63.3(72.7)	85.2
규모 별	대형	87.5	50.0	100.0	100.0	100.0	109.1	107.1	100.0	83.3	41.7	61.5	72.7(69.2)	100.0
	중견	38.2	56.4	74.5	81.8	81.6	71.0	90.5	76.5	63.9	59.1	76.9	59.3(87.2)	84.6
	중소	41.3	34.1	56.5	49.1	58.8	65.9	57.4	41.5	54.0	53.7	48.9	56.9(60.4)	68.6
지역 별	서울	64.4	50.9	91.3	98.1	96.1	101.6	98.5	86.4	80.9	50.1	71.0	69.5(79.6)	99.8
	지방	43.8	41.2	60.0	50.4	57.7	54.4	63.6	59.8	57.6	55.5	60.3	53.2(90.8)	65.6

주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2005년 12월 건설경기 전망은 85.2를 기록함.
 - 12월 건설경기 전망은 전월전망치에 비해 12.5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전망지수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해 향후 경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함.
 - 대형업체만 100.0을 기록하여 금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공사물량 여전히 부족, 감소 폭은 둔화

- 공사물량지수는 77.8를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¹⁾.
 - 공사물량은 전월에 비해 15.7p 상승하여 물량감소폭이 완화됨.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공사물량의 부족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사물량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수 자체는 전월에 비해 모든 공종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토목물량지수는 86.6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28.2p나 상승함. 이는 정부의 연말 발주로 인해 대형업체의 토목수주(118.2)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반면 중견업체(73.9), 중소기업체(64.0)의 물량은 크게 부족한 상태임.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토목, 주택, 비주택)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공종별 지수와 전체 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부문은 69.9를 기록해 정부의 8·31대책이후 신규분양시장의 위축으로 공사물량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주택 부문은 81.0을 기록해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규모별·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크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의 물량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대형업체(100.0)는 최근 2개월간 물량 부족을 나타냈으나 이번 달에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물량 감소가 심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71.4, 59.2로 여전히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임. 공종별로도 모든 부문에서 물량이 크게 부족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의 공사물량지수가 각각 85.1, 67.2를 기록하여, 물량이 부족한 상태로 조사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7.8	100.0	71.4	59.2	85.1	67.2
	전망	83.1	90.9	85.2	71.4	88.6	76.5
토목	실적	86.6	118.2	73.9	64.0	99.1	66.1
	전망	81.4	109.1	65.2	67.3	93.3	67.7
주택	실적	69.9	90.9	66.7	48.8	83.6	51.0
	전망	76.7	100.0	75.0	51.2	91.4	60.2
비주택	실적	81.0	109.1	78.3	51.1	87.6	63.1
	전망	86.7	118.2	78.3	59.6	93.3	69.6

주: 실적은 2005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5년 12월 예측지수임.

- 1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3.1를 기록하여 공사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대형업체 역시 90.9를 기록하여 연말의 공사물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중소업체 자금조달 여건 크게 어려워짐

- 자금관련 상황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94.8을 기록하였으며, 자금조달지수는 83.2를 기록함.
 - 대형업체의 경우 공사대금수금과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118.2, 100.0을 기록하여 비교적 자금여건은 좋은 것으로 풀이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94.8	118.2	96.4	65.4	106.8	78.4
		전망	96.1	109.1	100.0	76.5	104.9	86.1
	자금조달	실적	83.2	100.0	82.1	64.7	94.3	66.6
		전망	88.4	100.0	85.7	78.0	93.3	83.0
인력	수급	실적	97.7	100.0	103.7	88.2	104.9	86.1
		전망	102.5	118.2	103.7	82.7	113.6	84.6
	인건비	실적	88.7	100.0	85.7	78.8	91.3	83.1
		전망	85.2	81.8	89.3	84.6	80.8	89.2
자재	수급	실적	112.8	127.3	117.9	90.2	124.0	98.0
		전망	96.8	90.9	103.6	96.2	94.2	99.8
	비용	실적	81.9	90.9	82.1	71.2	87.5	74.3
		전망	86.7	90.9	89.3	78.8	86.6	87.7

주 : 실적은 2005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5년 12월 예측지수임.

- 인력과 자재조달의 경우, 수급 여건은 원활하나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력수급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97.7, 112.8을 기록함. 최근 인력수급지수는 기준선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최근 7개월간 지수가 기준선을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인력수급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건비(88.7)와 자재비(81.9)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은 큰 것으로 조사됨.
- 2005년 12월에도 인력 및 자재의 비용은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 인건비 지수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2, 86.7을 기록하여 수급 상황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조사됨.